

《코끼리와 벼룩》

#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게 될 것인가

변화가 빠른 시대를 살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충격이 너무 큰 탓이다. 어제까지 멀쩡한 지역이 홍수로 없어지고 작년까지 시장 1위를 하던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데이터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먼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는 것은 허망한 일일지도 모른다.

글\_권영설

**아** 무런 예측도 안하는 것보다 차라리 완전히 틀릴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미래를 내다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초대형기업은 코끼리, 1인 기업은 벼룩

섹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흥미로운 제목의 이 책 《코끼리와 벼룩》은 직장 사회의 미래를 예측한 책이다. 코끼리는 세계 톱3, 톱10 등으로 일컬어지는 초대형기업이다. 자동차로 치면 현대자동차가 모든 국내 자동차 회사를 합병하고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사가 되는 경우 이를 코끼리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코끼리 기업은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핵심역량을 합친다. 그 과정에서 비핵심적인 부분은 버리거나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을 주게 된다. 이때 수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이 생겨나게 돼있다. 자동차 부품만 만들거나 페인트만 제조하거나 아니면 차량이 출고됐을 때 배달만 해주거나 하는 작은 회사들이 나름의 비즈니스 목표를 갖고 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 아웃소싱업체들이 또 자기의 핵심 분야에 집중하면서 기타 부분을 외부로 돌리게 되니 다시 더 작은 아웃소싱 기업들이 생겨난다. 그 극단에는 딱 한 명이 근무하는 1인 기업이 있다. 찰스 핸디는 1인 기업을 벼룩이라고 이름 붙였다.

### 런던 비즈니스스쿨 학장 자리를 걷어차고

#### 1인 기업을 차린 찰스 핸디

저자인 찰스 핸디는 이미 지난 1980년대 초에 “앞으로 2000년이 되면 정년퇴직이 보장된 예전 직장에서 근무하는 영국 노동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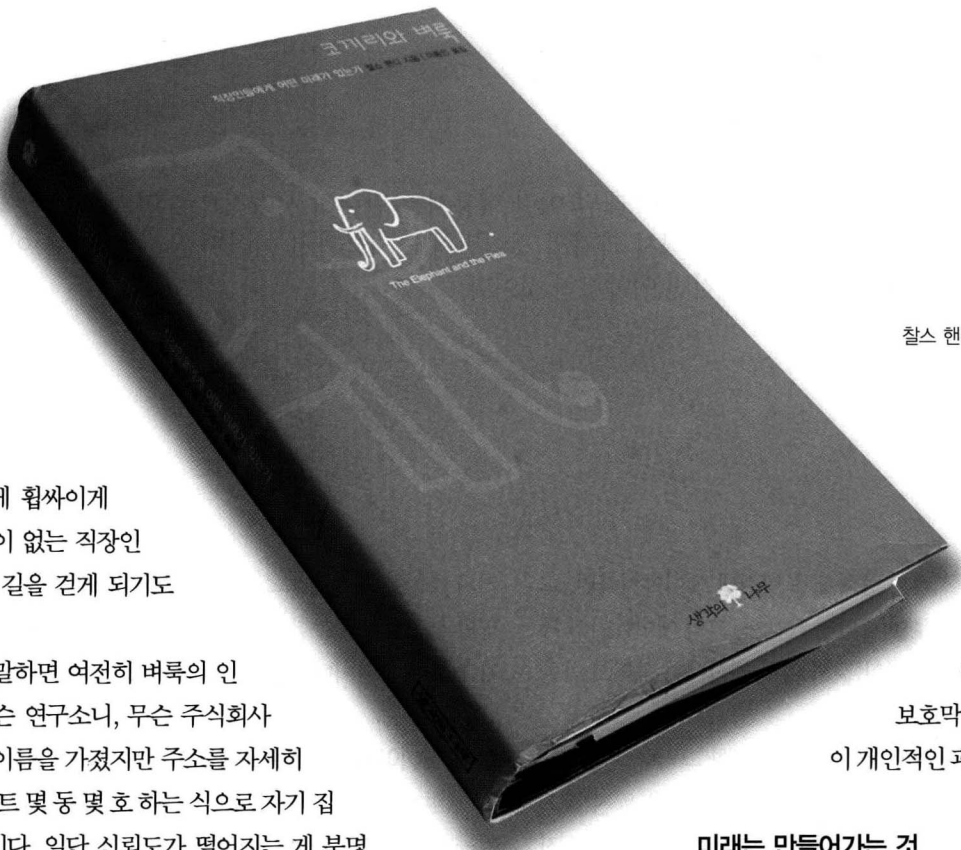
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당시로서는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지적받았지만 20여 년이 흐른 뒤 그의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영국에서 종신계약 전일제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력은 40%로 떨어졌다. 1994년에는 5명 이하를 고용하는 초미니 회사가 전체 영국 회사의 89%를 차지했고, 1996년 영국 회사의 67%가 1인 회사였다.

찰스 핸디는 그 자신이 벼룩의 생활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 지난 1981년 런던 비즈니스스쿨 학장 자리를 걷어차고 1인 기업의 삶을 시작했다. “예측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내가 가르쳐온 것을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대기업의 보금자리를 떠나, 혼자 바람찬 들판에서 풍찬노숙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세기 고용문화의 큰 기둥이었던 대기업, 그 코끼리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벼룩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여기서 벼룩은 프리랜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독립하고 나서 그는 불안해졌다. 행사장 같은 곳에 가서 명패를 받으면 적어 넣을 회사와 직함이 없어 낭패감을 느끼기도 했다. 코끼리 기업을 벗어나는 것도 불안했지만 벼룩의 위치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스스로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자신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자문하기도 했다. 실제 강연을 열심히 다녔지만 기념품으로 받은 시계 외에는 수입이 없어 그의 아내가 매니저 역할을 맡으며 돈을 벌게 된 사연 등이 책 속에 재미있게 표현돼 있다.

### 벼룩의 과제는 브랜드와 네트워크

약간 과장을 섞어서 말하면 국내에서 ‘1인 기업’의 바람이 분 데는 찰스 핸디의 영향이 큰 것 같다. 마침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게 되던



《코끼리와 벼룩》  
찰스 핸디 지음 | 이종인 옮김 | 생각의나무  
383쪽 | 값 13,000원

서 구조조정 바람에 휩싸이게  
되자 별 선택할 것이 없는 직장인  
들이 '1인 기업'의 길을 걷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벼룩의 인  
생은 고달프다. 무슨 연구소니, 무슨 주식회사  
니 나름대로 회사 이름을 가졌지만 주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〇〇아파트 몇 동 몇 호 하는 식으로 자기 집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분명  
사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식으로 묻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벼룩기업 사장들은 곤혹스러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변했다. 큰 기업들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점점 더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글로벌 우량기업일수록 코끼리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끼리 기업들이 버리거나 집중하지 않는 일들  
은 대부분 작은 아웃소싱기업이나 프리랜서들이 나타나 처리하고 있다.

헐리우드 영화의 제작시스템을 보라. 스피어버그가 수 백 명이 되는 직  
원을 거느리고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면 감독팀을 뽑고  
주연배우를 캐스팅한다. 나머지 촬영감독, 편집, 조명, 특수효과, 조연  
배우, 홍보, 광고, 배급 등은 전부 전문가들이 나타나 해당 영화에 집중  
하며 일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가 나오면 모였던 사람들도 일정한 보수  
를 받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일이 있을 때만 모였다가  
끝나면 흩어지는 잠정 조직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상팀'이나 '임시조직'이라고 부른다. 가상팀에 불러오는 사  
람들이 바로 벼룩들인 것이다. 이 때 벼룩의 과제는 무엇일까. 코끼리 기

업에 다니던 시절보  
다 더 중요한 것  
이 브랜드를 쌓  
고 네트워크를 키워  
야 하는 것이다. 회사라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이 개인적인 과제이다.

###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

많은 이들이 미래를 예측하지도, 준비하지도 않는 것이 우  
리 문화다.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미래는 현재가 모여 쌓여간다는 막연한  
믿음 탓인 것 같다. 사실은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기의 비전과 중  
장기 계획 아래 미래는 자기 구상대로 되는 것이다.

찰스 핸디가 자신의 회고록 형식으로 쓴 이 책에서 독자들은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전진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아주 부드러운 문체와 마음에 와  
닿는 예화는 글을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번역을 통해서 읽게 되었지만  
찰스 핸디는 참 생각이 많은 저자라는 느낌을 이 책을 읽는 내내 지울 수  
없었다. **★**

권영설님은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가치혁신연구소장, HiCEO 총괄 책임자이다.  
《직장인을 위한 변명》 《당신의 경제수명은 몇 년입니까?》 등의 책을 썼다.